

변화를 위한 기독교 상담의 세 가지 자원

안경승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I. 여는 글

얼마 전 과학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주는 한 방송 뉴스를 통해서 새롭게 발명된 컴퓨터 용 마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이 마우스는 나우스(nouse)라고 불리우는데, 특징은 컴퓨터 앞에 앉은 사람의 코의 움직임에 따라서 모니터 상의 커서(cursor)가 움직이고, 눈을 깜빡일 때 클릭(click)이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었다. 단지 마우스의 변화만이 아니고 세상은 무서운 속도로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다.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 역시 변한다. 육체적인 성장이 그쳤다고 해도,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래서 자라는 생물에게서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도 성장하고 변해 간다는 것은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변화는 방향성이 있다. 누구나 변하지만 누구나 성장과 성숙의 방향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변화는 성숙의 방향으로 일어나야 한다. 특별히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신자들 역시 자신의 변화를 위해 힘쓰는 것이 사명일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해 매여진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였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역도 같다. 복음을 전해 죄에서 구원 얻게 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 모습인 전인적인 건강과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 이상으로 달려가야 하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성장이 필요하다. 우리는 또한

이런 성장을 서로 격려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에베소서 4:11-16 는 이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함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구절에서 나타나는 주된 변화의 개념은 온전케 함과 성숙이다. 서로 돕는 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사역의 활동을 해야 한다. 특별히 기독교 상담자는 피상담자와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상대방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실 것이고 그 온전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우리의 연합함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분의 강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변화 중심의 만남을 갖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 피상담자는 변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어떤 면으로든지 변화될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 것을 상담자가 인도해 주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런 피상담자의 변화의 가능성을 소망하면서, 먼저 변화의 온전한 방향으로서의 성숙에 대한 이해를 한다. 그리고 이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상담적 자원과 접근 방법을 기독교 상담적 입장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변화와 성숙

성도의 성숙에 대한 성경의 교리적 진술은 성화(sanctification)이다. 구약에서는 거룩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카다쉬(קָדַשׁ)가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는

“분리”, “구별”로서 부정한 것에서 구별해서 성별 되게 한다는 것이다.¹⁾ 신약에서의 성화의 용어는 하기가오(ἀγιασμός)로서 “거룩하게 하다”, “거룩하게 여기다”, “거룩을 인정하다”(마6:9, 눅11:2, 벰전 3:15)는 의미를 담고 있다.²⁾ 이외에도 구약의 의미와 맥을 같이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분리” 또는 “어떤 직무를 위해 구별하는 것”을 표현할 때도 사용된다(마 23:17, 19; 요10:36; 딤후2:21).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결케 할 때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요17:17; 행26:18; 고전1:2; 살전 5:23).

거룩과 연관되지만 신약에서 사용되는 또 다른 인간의 성숙을 표현하는 단어들은 “온전(mature)”, “장성(grown-up)”, “완전(perfect)”이라는 용어이다. 신약의 성경 기자들은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의 변화의 방향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마5:48, 19:21; 고전2:6, 14:20; 엡4:13; 빌3:15; 골1:28, 4:12; 히5:14; 약1:4, 3:2).

1) 성숙의 성격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도의 성숙함에 대한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변화 곧 성도의 성숙은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소생을 의미한다(롬6:6; 엡4:22).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살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자기 자신 또는 세상으로 향해 있던 옛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방향을 바꾸어 서고, 새사람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중생과 구원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변화와 성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점진적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회복해 가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을 갖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갖추게 되기를 바라는 성품, 신체, 영혼, 지성과 감성을 새롭게 회복해 가는 것이다. 이것을 아담스(Jay E. Adams)는 더 구체적으로 옛 습관에서 새로운 습관으로 옷 입는 것으로 표현하였다.³⁾

1) John I. Durham, *World Biblical Commentary: Exodus* (Waco, Texas: Word Books, 1987), 406, 472.

2)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2nd., s.v. "ἀγιασμός."

3) Jay E. Adams, 『기독교 상담신학』, 유근상, 원준자 공역 (서울: 크리스

우리는 전 삶의 영역에서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 여전히 신자라고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옛사람을 매일 매일 부인하는 가운데 새사람의 모델 되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가야 한다. 칼빈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변화를 자연인의 사고방식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사고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공장에 비유하고 새사람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점임을 강조한다.⁴⁾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회복해 가는 과정을 이 땅에서 지속하기를 원하신다(빌2:12, 3:12-14; 뵤전2:2; 히5:12-6:2).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과 그의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다시 말해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의도와 더불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성장과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렘29:11).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변화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 뿐 만이 아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⁵⁾ 사회적 평가에 의한 성숙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따른 변화가 중요하다. 이것을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것이다.

더불어 전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이다. 어느 누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온전한 인간상을 완전하게 다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에 따라 그 과정을 채워 가고자 하는 것이고, 실제로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바라 봐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것은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닮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인격이고,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적용하고 인격화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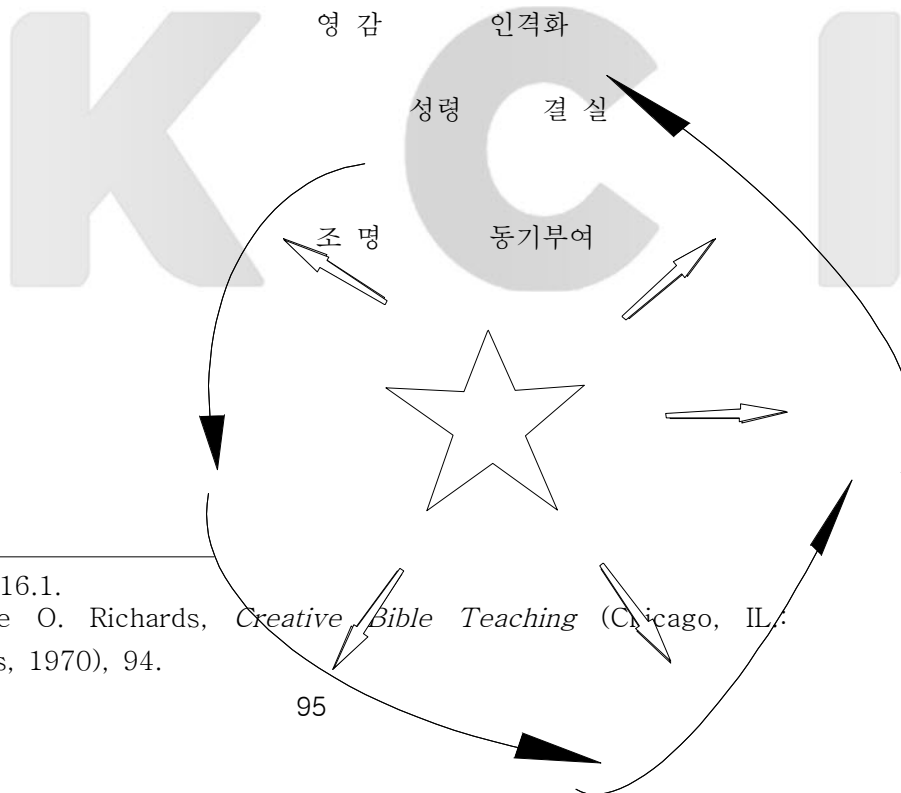
셋째, 변화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칼빈은 칭의 만이 아니고 성화 역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부터 유래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⁶⁾ 우리 변화와 성숙은 그리스도의 능력, 다시 말해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찬 출판사, 2002), 314-29.

4) John Calvin, *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 trans. F. L.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1975), I:5:4.

5) Charles 콜라, 『해결중심 목회상담학』, 유재성 역 (서울: 요단, 2004), 92-95.

루어지는 역사이다. 기독교인의 성숙은 자기 실현(self-actualization)이나 자아의 강화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는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새사람의 옷을 입고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된 새로운 삶의 습관을 익혀 가는 것이다(갈5:25). 우리에게 필요한 습관의 변화는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힘의 근원에 의존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의 우리 안에서 성숙으로 이끌어 가시는 다양한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 로렌스 리차드(Lawrence O. Richards)는 아래의 그림으로 설명하였다.⁷⁾



6) Calvin, 3.16.1.

7) Lawrence O. Richards, *Creative Bible Teaching* (Chicago, IL: Moody Press, 1970), 94.

처음 영감(inspiration)의 부분에서는 성령으로 영감 되었고, 지금도 성령의 일하심과 감동과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단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한 검증과 확인이 필요하다. 조명(illumination)의 부분은 우리 삶에 적용이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성령께서는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삶에 적용되고 생활 속에서 조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성령은 또한 우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는 동기를 부여(motivation)하시고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신다. 알고 적용하는 바를 행하는 과정에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결실(fruition)의 단계에서 성령은 모든 선한 일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의 열매는 그 자체가 사역의 열매라는 부수적인 효과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결실이다. 마지막으로 인격화(personalization)는 하나님을 지식과 삶과 체험을 통해 좀 더 알아 가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2) 변화와 발달

변화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의 학문적 용어는 발달이다. 특히 인생주기(life-span)나 발달심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간의 생물학적 연령에 따른 발달적 주제와 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사회심리학적 발달 이론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전제는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과정과 발달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일련의 발달적 과제를 어떻게 통과해 가느냐가 발달을 위한 핵심적 요소가 된다. 발달에 이르는 심리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들과의 상호교류가 영향을 끼친다. 다시 말해 건강한 성숙을 위한 발달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관계는 지지 내지 저해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⁸⁾

이 이론을 대표하는 에릭슨(Erik H. Erikson)의 이론은 인생의 각 단계마다 성취해야 할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인간의 발달은 초보적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발달되어간다고 제시했다. 이 때 중요한 점은 한 사람

8) Lawrence O. Richards, *A Theology of Children's Ministry* (Grand Rapids: Zondervan, 1983), 103.

의 삶은 바로 이 전의 경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성취되지 못했던 과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은 이런 일직선적인 변화와 존재의 방식을 뛰어넘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인생의 각 단계에서 성취하게 되는 교훈들을 통합하고, 단계를 뛰어넘는 발전을 경험할 수 있다.

신앙발달에 대한 연구한 파워스(Bruce P. Powers)는 신앙발달의 과정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양육의 현장(nurture)에서 대상자에 대한 가르침(indoctrination)이 이루어진다. 성장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자신이 전달받은 가르침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 적용해 보는(reality testing) 과정을 통과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어떤 선택을 개진하게 된다(making choices). 그런 후에 신앙적 가르침에 대한 실제적인 헌신(active devotion)이 가능하게 된다.⁹⁾ 웨스터호프(John Westerhoff)는 체험(experienced)에서부터 시작한다. 자신의 삶을 통해 체험한 삶의 문제나 어려움,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가운데 신앙을 접하게 된다(affiliative). 그리고 해답을 추구하게 되고(searching), 그 답을 신앙 안에서 찾게 되었을 때, 자신의 결단과 삶으로 삼게된다(owned).¹⁰⁾

파울러(James Fowler)는 일곱 단계의 신앙발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미분화된 신앙(undifferentiated faith)의 단계, 둘째, 직관적 투영적 신앙(intuitive-projective faith)의 단계, 셋째, 신비적 문자적 신앙(mythic-literal faith)의 단계, 넷째, 종합적 전통적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의 단계, 다섯째, 개성화와 성찰의 신앙(individuative-reflective faith)의 단계, 여섯째, 결합적 신앙(conjunctive faith)의 단계, 일곱째, 보편화된 신앙(universalizing faith)의 단계이다.¹¹⁾ 파

9) *Course Syllabus: Foundations for Christian Formation*, ed. Julie Gorma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4), 71.

10) Gorman, 71.

11) James 파울러, 『신앙의 발달단계』, 사미자 역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1987). 복음주의적 기독교 교육학의 관점에서 권택조교수는 아홉 가지로 파울러의 신앙발달에 대한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1) 신앙의 개념문제, (2) 신앙의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점, (3) 구원과 관계 없는 신앙발달을 말한 점, (4) 기독교론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점, (5) 성령론을 떠나서 신앙발달을 말한 점, (6) 성경관에 문제점, (7) 연구방법에 있어서 타당도와

울러의 신앙발달 이론의 특징이자 한계는 신앙발달의 요인을 인간발달의 요인과 동일시해서 외부적 영향력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과, 지적 능력의 발달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콜버그(Lawrence Kohlberg)의 도덕발달론과 피아제(Jean Piaget)의 인지발달에 대한 관점 역시 인간 발달의 다른 측면을 이론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르바르(Lois E. Lebar)의 적절한 지적과 같이 신앙 발달을 포함한 전반적인 심리학적 발달이론은 인간 본성에 대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통찰을 간과한 것으로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God-given process of growth)의 일부분만을 보여주고 있다.¹²⁾

2. 성숙을 위한 세 가지 상담적 자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과정을 걷고 있는 그러나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경우 주자로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상담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 뜻대인 목표를 향해 그 사람이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상담자는 피상담자에게서 성숙된 미래를 향한 가능성을 찾는 탐색자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세워 주는 건설자가 되어야 한다. 상담자가 변화에 초점을 맞출 때 성령께서 약속하신 전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피상담자는 이미 자기 스스로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고 있을 때가 많고, 그것에 얽매이게 된다면 변화에의 전망은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작은 변화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확인하는 도움을 주는 가운데 결국은 피상담자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상담의 과정 속에서 분명히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

신뢰성의 문제, (8) 거듭남과 영적 성장과는 거리가 먼 점, (9)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성발달에 있어서의 문제 등이다. 권택조, “복음주의적 기독교 교육학의 관점에서 본 파울러의 신앙발달 이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선교』 제6호(2002): 278-281.

12) Lois E. Lebar, *Education that is Christian* (Wheaton, IL.: Victor Books, 1989), 213. 르바르는 발달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과 신학적 입장에서 기독교 교육을 다룬 탁월한 작품으로 파즈미노의 책을 언급하고 있다. Robert W. Pazmino, *Foundation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 An Introduction in Evangelical Perspective* (Grand Rapids.: Baker, 1988).

고 받아들이면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상담자의 가장 기본적이고 바람직한 자세가 될 것이다.

더불어 본 논문은 변화를 위한 세 가지 상담적 자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미 상담현장에서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언급되는 자원들에 근거한 다양한 상담방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기독교 상담적 관점에서 평가해 봄으로써, 이러한 접근 방법에 대한 기독교 상담에서의 긍정적 활용 방법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1) 마음의 변화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롬 12:2). 성령은 우리의 영(spirit)이 거룩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영이 주도하는 중요한 인간의 속성은 마음이다. 예수님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막 12:30)라고 하시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바울 역시 “오직 심령(the spirit of your mind)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3-4)라고 영이 주도하는 마음이 거룩을 이루어 가는 힘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마음”은 선택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준비되는 인간의 중앙통제센터와 같은 곳이다. 우리의 느낌, 감정, 필요, 그리고 열정을 통제하는 내적 존재의 중앙부라고 할 수 있다.¹³⁾ 오글비(Lloyd John Ogilvie)는 “하나님의 영은 인간에게 있어서 사고 기능을 하는 대뇌의 피층으로 임재하시고자 하며,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길 원하신다. 두뇌는 우리의 정서와 신경조직의 기능과 생체 조직 전반에 관한 것 뿐 만 아니라 우리의 지각과 기억과 상상력과 의지의 중앙통제기관이다. . . 더 나아가 뇌의 사고적 기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기 위한 중앙통제기관이다.”이라고 언급하면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¹⁴⁾

마음은 중앙통제센터로서 역할을 하면서 우리의 지, 정, 의의 모든 영역

13) David E. Garland,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Mark* (Grand Rapids: Zondervan, 1996), 483.

14) L. J. 오글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담자』, 한재희 역 (서울: 이레서원, 2001), 76.

을 통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마음의 인지능력은 세상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게 한다. 인지능력은 공부하고 훈련하는 데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하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일상 생활에서 쉽게 하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마음의 능력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전인적인 변화의 기초로서 우리 마음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은 현실을 낳게 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자신에게 사실이 되어간다. 인간의 인지발달을 부각시킨 구성주의적 관점은 인지구조의 성장이 발달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⁵⁾ 우리 모두는 자기 주변의 사회와 환경에 적응하는 가운데 자신이 경험하는 것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인지적 구조를 발달시킨다. 자신의 세상은 그 사람의 특별한 체험들,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들과 반응들, 그리고 유전적인 영향 등을 통해 형성된다. 그렇게 사람은 각각 독특하게 형성되어져 왔고, 지금도 그러한 형성의 과정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한다. 스스로 사고를 구성해 가는 가운데 실제와 사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자신의 인지능력을 습관화해 간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가진 습관화된 사고방식으로 인해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고 중요한 정보는 무시하고 새로운 생각은 기존의 생각에 맞도록 왜곡한다. 다시말해 정보는 있어도 그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하고 해결책을 보지 못한다. 우리 마음의 습관적 사고는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 점을 상담에 적용해 볼 때, 중요한 점은 피상담자가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이에 따른 대안과 해결책을 찾는 것에 영향을 준다. 상담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령과 성경의 도우심을 받아 피상담자에게 경험을 새롭게 이해하고 인식하는 패턴을 제시해 주어야하는 것이다.¹⁶⁾ 퍼니스 (George M. Furniss) 는 변화를 학습의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많은 문제들이 성장과정에서 있었던

15) Richards, *A Theology of Children's Ministry*, 103.

16) 콜라, 87.

잘못된 학습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는 이에 대한 치유를 위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생각을 하나님, 능력, 생명 그리고 건강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들로 서서히 바꾸어주는 의식의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¹⁷⁾ 사람이 어떻게 인지적 학습을 통해 변화하는가에 대한 파워스의 학습 과정의 5단계를 상담에 적용해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¹⁸⁾

우선 개인적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는 자각(awareness)이 출발점이다. 상담 효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인 중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 피상담자의 개방성과 자기 변화의 의지이다. 자신의 왜곡된 생각과 마음의 뿌리 깊은 습관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발견한다. 주님은 나의 사고와 생각의 과정을 변화시키시기 원하신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분의 조성하심이 우리의 사고 과정을 새롭고 건강하게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려야 한다. 둘째는 기독교 교육과 상담의 현장에서 이런 필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recall)한다. 셋째는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왜곡된 생각의 습관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성경을 통해서 분별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과 가능성을 강화해 간다(understanding). 넷째는 구체적인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conviction), 마지막은 주어진 삶과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워진 인지적 관점과 능력을 적용하는 것이다(application).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 생활방식의 변화의 원리를 세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불경건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생각의 유형을 거부한다. 둘째, 자신의 지성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린다. 셋째, 생각과 느낌과 행동에서 그분의 방법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한다.¹⁹⁾

마음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점이 있다. 변화에 장애물로 작용하는 죄에 대한 이해와 변화의 근원으로 제시되는 지혜로운 성경 활용의 중요성이다. 사실 죄는 마음의 변화만이 아니고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변화를 가로막는 부인할 수 없는 인간 존재의 또 다른 측면이다.

17) George M. Furniss, "Healing Prayer and Pastoral Care," *The Journal of Pastoral Care* 38 (June 1984): 111.

18) Bruce P. Powers, *Growing Faith* (Nashville: Broadman, 1982), 57.

19) 노움 웨이크필드, 『누가 죄를 상관 없다 하는가?』, 임혜진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4), 160.

예수님은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7:21-23) 바울 역시 로마서 8장에서 우리 생각이 두 근원 중 하나의 지배를 받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나가 우리 마음의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죄의 세력이다. 죄가 생각을 지배하면, 죄를 짓는 감정과 행동이 나타난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그 분이 생각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마음에 영향을 주는 죄의 작용에 대해서 웨이크필드는 우리의 전쟁이 지성(생각)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 죄가 그 적수로 작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지성을 지배하는 자가 감정을 지배할 것이며, 그에 따라 행동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죄는 내 지성에 침투해 생각을 형성하는 우선적인 기회를 잡았다는 점에서 우위를 점령했다. . . 죄는 아주 미비한 자극만으로도 곧바로 행동을 건너뛰게 하는 생각의 유형을 만들어 놓았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이나 눈짓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때 ‘단추 누르기’ 라는 표현을 쓴다. 내 반응은 번개 처럼 빨라서 그것에 대해 생각할 틈조차 없을 정도이다. 그것이 바로 죄가 작동하는 방식이다.”²⁰⁾

우리는 옛습관에 의해서 깊게 영향을 받은 옛생각을 분별하고, 지금도 여전히 생각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죄가 만들어 낸 생각을 드러내야 한다. 또한 이런 생각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감정과 행동의 유형을 알아내서, 하나님의 영이 생각을 인도하고 감정과 행동을 지키시도록 해야 한다.

로마서 12: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다음의 목표가 된다. 이를 위해서 성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을 좀 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없다.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이다. 성경을 통해서 마음을 형성했다고 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다. 시편 기자 역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20) 웨이크필드, 160.

(시 119:11)라고 하면서,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의 중요성을 고백하고 있다.

성경의 진리는 교리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이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이고(요8:32), 지금 당장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다. 상담자의 사역은 이 진리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피상담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이 계시된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진리를 전달하면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성급한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된다.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에 대한 이해를 아래의 표를 통해 생각해 본다. 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적용²¹⁾

보편적 전제	성경의 본질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성경의 계시는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고 신자의 신앙과 인격의 자원이다	정의되지 않음	성경이 진리를 담은 지식임을 전제함	지식은 알게 될 수 있다고 전제함	지식은 전달되어야 한다고 전제함	전달 받는 이가 진정한 지식을 알게 될 때, 그들이 적용할 수 있다 전제한다
성경의 계시는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고 신자의 신앙과 인격의 자원이다	본질적 진리: 실재를 드러내 줌	드러난 실제에 의해 사는 것으로 우리가 성장한다.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개념화와 함께 경험되어야 한다고 전제함	우리는 실제에 대한 개인적이고 경험적 지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	전달 받는 이가 실재를 경험할 때 성경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다

이런 관점 때문에 기독교 상담에는 성경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마음의 조성함을 시도하는 상담법들이 발전되어 왔다. 이에 따른 접근법들에는 래리 크랩(Larry Crabb)의 성경적 상담(biblical Counseling), 제이 아담스(Jay

21) Richards, *A Theology of Children's Ministry*, 66.

E. Adams)의 권면적 상담(nouthetic counseling), 마틴 밥간(Martin Bobgan)과 디어드 밥간(Deirde Bobgan)의 영적 상담(spiritual counseling), 셀윈 휴즈(Selwyn Hughes)의 기독교 상담(Christian counseling), 게리 콜린스(Gary Collins)의 제자화 상담(discipleship counseling), 윌리엄 백커스(William Backus), 아치발트 하트(Archibald D. Hart) 등이 포함된다.

이들이 상담 가운데 성경을 활용하는 방식은 (1) 권고, 훈계, 직면, 회개의 촉구 등이 이루어지는 선지자적 접근, (2) 어떤 진단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치료책이 성경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처방적(prescriptively) 접근, (3) 관련된 성경 구절을 배우고, 기억하고 적용한다는 방법에서 테이프 바꾸기(changing the tapes)식 접근이다.²²⁾

2) 관계의 변화

사람이 성장하려면 두 가지 영역에서의 관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과의 관계이다. 모든 신학자들이 공통되게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수직적인 차원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인 차원의 인간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²³⁾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수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과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고, 저들의 삶의 현장은 언제나 공동체와 그리스도의 몸이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독특하고 인격적이며 역동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귀는 관계를 맺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에 반응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요인은 그

22) Rogers 허딩, 『성경과 상담』, 문희경 역(서울: 기독교연합신문사, 2003), 246-248. 기독교 인지상담은 일반인지상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인지상담이 강조하는 것은 비합리적 신념들이 보다 현실적인 평가를 통해 인식되고 반박될 필요가 있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행동이 좀 더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반응들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23) Antony A. 후크마, 『개혁주의 인간론』, 유호준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134-7.

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웃들과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훈련을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우웬(Henry J. M. Nouwen)은 영적 훈련에 대해서 제시하면서, 모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해야 하는 두 가지 영역의 훈련이 있음을 강조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훈련하는 홀로함(solitude)의 시간과 이웃과의 관계를 훈련하는 공동체(community)와의 시간이다.²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체험하려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려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 지식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과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성장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체된다. 정신 건강적 측면에서 인간의 관계는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지탱해주는 요소이다. 실제로 여러 병리 현상과 정서적 문제 속에는 소외나 고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독이나 강박 관념에서 회복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에 연결되지 못한다면 그 회복은 그치게 된다.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엡 4:18-19) 클라우드와 타운센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 연계가 끊어지면 그 영혼은 연계를 갈망하게 되는데, 이때 사랑에

대한 욕구가 물릴 줄 모르는 갈망으로 변한다. 그것은 약물, 음식, 쇼핑, 또는 도박

중독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 진짜 욕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 그리고 사람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계에 있기 때문

24) Henry J. M. Nouwen, "An Invitation to the Spiritual Life," *Leadership* 2, no. 3(1981): 53-64.

이다. 사람이 이런 연계를 회복하면 중독은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처음에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계되어 성장한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연계를 통해 성장한다. 사람들과 연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도 연계되지 못한다.²⁵⁾

문제에서 벗어나서 성장하려면 사람들과 더 많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리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 .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고후 6:11-13)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들의 인생에 참여해서 그들을 변화로 나아가게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에 본을 보이셨다. 온유하신 예수님께서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히4:15).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요 8:11)고 하셨다.

상담자는 상담과정을 통해 피상담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그리고 이것은 피상담자와의 관계를 구축함으로 시작된다. 이것을 허딩은 기독교적 인격주의(Christian personalism)라고 설명하였다.²⁶⁾ 도움을 받는 개인의 독특성을 존중하고, 성장과 성숙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피상담자와 상담자의 관계를 관찰하고 이용하는 방법이다. 폴 투르니에(Paul Tournier)의 대화상담(dialogue counseling)과 하워드 클라인벨(Howard Clinebell)의 성장상담(growth counseling), 게리 콜린스나 헨리 나우엔의 상담이 그 중요한 예들이다.

기독교적 인격주의 상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특징은 (1) 관계를 통한 위로에 초점을 맞추고, 그 방향은 본질적으로 성숙의 성취를 향한다. (2) 위로를 표현하는 성경의 *parakaleo* 가 중요한 핵심 단어인데, 그 의미는 “권

25) Henry 클라우드, 존 타운센드, 『성장 프로젝트』, 정영재 역 (서울: 좋은 씨앗, 2001), 146.

26) 허딩, 257.

고하다”, “위로하다”, “안위하다”, “격려하다“이다(고후1:3-5). (3) 보혜사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는 현상이다. (4) 성경이 상담자의 인격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방법이다.

인간 관계를 통한 발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관계 이론의 방법론으로 제시되는 것은 사회화(socialization), 모델링(modeling), 동일화(identification), 모방(imitation), 강화(reinforcement) 등이다. 특히 이 중에서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할 모델이다.²⁷⁾ 역할 모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지혜, 자비, 이해, 사랑과 친절, 능력, 아름다움, 위대함, 근본되심, 섭리하심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시고 이런 것들을 인간이 삶 속에서 관계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훈련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능력이 있고 이것을 구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는 본 적이 없는 일을 행하기가 어렵고 가르쳐 주는 분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또한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 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살전 1:6-7).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그분의 본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요일2:6).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히13:7)고 말씀하였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을 본보기로 내면화시켜서 닮아 가도록 하셨다. 그렇게 체험하는 본보기는 물론 좋은 영향도 가능하고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다. 나쁜 영향은 분별해서 제거해 가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상담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본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다. 바울이 말했듯이 피상담자는 예수님을 본받는 상담자를 본받는다.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상담자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본을 따라 할 때, 그와 관계를 맺는 피상담자는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게 된다.

27) Israela Siberman, "Spiritual Role Modeling: The Teaching of Meaning Systems,"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3, no. 3 (2003): 176.

탈무드는 사람이 교실에서의 가르침 만큼이나 지혜로운 사람과의 매일의 개인적 삶과 관계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²⁸⁾ 의로운 상담자는 피상담자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영적인 역할 모델을 할 수 있다. 또한 영적 역할 모델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읽음으로써 배울 수 있다. 지혜롭게 성장한다는 것은 역사적 인물, 성경의 인물, 주변의 인물, 서적 속의 인물 등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은 피상담자에게 성숙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역할 모델로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결점을 본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의 결점을 깨닫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사1:3).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을 통한 영적 학습이다. 삶과 행동을 배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봄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²⁹⁾ 영적 역할 모델링에 대해 강조하는 반두라(Doug Oman)는 이렇게 말한다. “모델링의 능력을 인식하는 것은 전통적인 종교적 가르침이 최근의 심리학적 이론이나 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간행동의 형성 과정에 있어서 관찰적 학습과 사회적 모델을 통한 배움의 중요성을 점차 더 인식해 가고 있다.”³⁰⁾

3) 상처의 치유

세 번째 상담이 제공하는 성장의 자원은 과거의 상처에 대한 해결이다. 이것은 현재에도 여전히 우리를 얽매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거의 쓴 뿌리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이라는 측면과, 과거를 해석하는 내 생각과 오랜 습관을 가진 삶의 잘못된 패턴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놓는 작업이다. 사람은 역사를 가진 존재이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과거와 단절되어 존재하는 것이

28) Siberman, 177. 탈무드는 용기, 영적 능력,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인내하는 것, 자기 통제, 자기 희생, 이웃에 대한 관심과 긍휼, 관대함, 용서와 화평을 구하는 것, 소망, 신실, 세상에서 단지 선을 볼 수 있는 능력, 겸손, 정직, 공정 같은 성품을 강조한다.

29) Doug Oman, Carl E. Thoresen, "Spiritual Modeling: A Key to Spiritual and Religious Growth?"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13, no. 3 (2003): 150.

30) Albert Bandura, *Social Formations of Thought and Ac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86), 55.

아니라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많은 부분들이 과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과거의 영향의 실체를 밝혀내고 치유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자유하고 미래의 성장으로 나아가는 힘이 된다. 특히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을 때 치유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첫째, 인정해야 한다. 삶의 현실들을 경험하게 될 때, 삶은 기쁨 만큼이나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처와 아픔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성장은 이런 자신의 상처를 인정함으로써 가능하다. 우리는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성숙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피하려고 하고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란다.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려 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다. 스캇 펙은 “신경증이 항상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이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고통보다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고통스럽게 된다. 신경증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³¹⁾ 상처는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처 때문에 후회하게 만들지 않으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상처의 고통이 가치가 있다는 사실과 그런 체험의 과정이 성숙으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상처는 직면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정신적인 성장과 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특별히 시대 정신 중의 하나는 과거가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이유를 항상 제공한다고 확실하게 믿고, 자신을 과거의 희생물로 생각하는 경향이다. 내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과거로 묻게 되고 모든 것이 나보다는 누군가의 책임이 된다. 상처와 고통은 그것을 직면하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오히려 성숙의 자원이 된다.

둘째, 상처는 해소되고 정화되어야 한다. 바울의 말처럼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해야 한다(빌4:6-7). 우리가 아픔을 정직하게 직시할 때, 그 아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발견할 수 있다. 심리학에서는 카다르시스란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던 에너지와 감정이

31) Scott 펙, 『아직도 가야할 길』, 신승철, 이종만 역 (서울: 열음사, 2001), 17.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정화의 개념을 사용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로 인한 정서를 표현하게 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카타르시스가 일부의 정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기독교 상담에서의 정화는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행한 잘못을 고백하고 그 분께 용서받아야 할 것은 용서를 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잘못을 행한 이들을 용서해야 한다. 어렵고 길고 힘든 용서의 과정이지만 걸어가는 것이 참된 정화를 위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셋째, 미래를 향해 자유하는 것이다. 과거의 실수나 다른 이들의 악을 부인해서도 안되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도 없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우리 자신을 과거의 고통 속에 가두어 둘 필요가 없다. 과거에 매이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기회도 놓치고 내일의 소망도 볼 수 없게 한다. 우리는 과거를 다시 만들 수도 고칠 수도 없고 단지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과거의 사건을 재편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해야 한다. 과거의 다양한 영향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또 하나의 새로운 날로 맞고, 과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최고를 분별하고 미래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소망은 과거에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미래에도 일하신다는 것이다. 소망은 미래의 기억이다 즉 과거에 신실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실 것이다.

과거에 비추어 현재의 가능성을 보는 것은 다른 이들의 과거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상처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슬퍼한다. 그리고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작되는 과거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이 하신 일과 사람들이 했던 사건을 설명하신다. 활동과 설명이 있고 사건과 해석이 뒤따른다. 역사에 해석이 없는 사건이 없다.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활동과 사람의 활동을 해석하신다. 그 분은 일하시고 설명하신다. 그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설명하신다.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활동은 설명되어진다. 해석이 없는 역사는 없다. 우리 역시 과거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거를 온전히 해석하는 방식을 배워야 한다.

허딩은 과거의 치유 방법을 분석적 접근법(analytic approaches)라고

했는데, 주로 기독교계 내에서는 내적 치유라고 알려져 있다. 기도상담, 기억의 치유, 신앙적 상상 등과 같은 경험과 기억에 집중하는 치유 방법이다. 아그네스 샌포드(Agnes Sanford), 앤 화이트(Anne White), 캐서린 마셜(Catherine Marshall), 루스 카터 스태플톤(Ruth Carter Stapleton), 플로라 슬로손 웰너(Flora Slosson Wuellner) 등이 대표적인 이들이다.³²⁾

내적 치유적 접근에서 강조되는 것은 (1)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이다. (2) 분별과 통찰과 이해를 중심으로 한다. (3) 속사람을 대상으로 속사람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4) 마음, 감정, 괴로운 기억, 꿈 등을 치유하는데 목적을 둔다. (5) 심상화 작업과 기도와 용서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내적 치유의 방법이 필요한 성장 자원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은 과거를 기억하는 인간의 패턴이 여전히 옛습관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기억은 일어난 일들을 만들어 가고 벌어진 일들을 구성해 간다. 기억은 강조점을 변경하고, 결과를 바꾸고, 미화하고 확대하고 무시한다. 심지어 어떤 것은 창안되어진다. 우리는 기억되어진 사건들과 그 주변의 이야기들을 꾸미고 발전시켜간다. 실제로 뇌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뇌의 능력 가운데는 구성하고 발명하고 정보를 발전시키는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기억은 마치 컴퓨터 저장 기능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다. 기억은 끊임없이 재발명되는 과정이다.³³⁾ 기억은 사건들의 구성 조각들과, 다른 사람에게서 비롯된 내용들과의 연속되는 토의, 어떤 견해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에 대한 현재의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현재의 문제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엡4:22) 옛사람은 구습을 도구로 삼아서 믿는 것, 생각하는 것,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왜곡한다. 피상담자가 상담의 현장에 가져오는 오늘의 문제는 삶의 패턴이 시간을 지나면서 재현된 것이고 연습된 것이고 발전된 것이다. 상담자는 피상담자의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마땅히 생각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생각하도록 도와야 한다.

III. 맺는 글

32) 허당, 252.

33) John F. Bettler, "Counseling and the Problem of the Past," *Journal of Biblical Counseling* 12 (Winter 1994): 17.

가끔 상담 현장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들과 변하지 않는 피상담자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과 한계에 부딪치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변하고 또 변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질 믿음이다.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은 기독교 상담의 자원이자 능력이다.

성숙이라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적, 그리고 상담적 자원을 세 가지로 생각하였다. 우리는 성숙하기 위해서 마음이 변해야 한다. 마음의 변화가 아무 것도 변하게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도 모든 것을 다르게 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문제로 인해서 정체될 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을 고정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이 영으로 인도함 받고 우리 생각, 말, 행동을 주관하기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그 나라에 고정될 때, 우리를 얽어매던 것은 점차 뒤로 물러날 것이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의 방식에 우리 마음을 고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손안에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좀 더 분명히 보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관계는 우리에게 상처도 주지만, 근본적으로 관계 맺으며 살도록 지음 받은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성장한다. 관계는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고, 서로가 상대방을 통해 하나님의 영을 인식하는 것이다. 수용하는 환경, 열린 마음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고 결국 죄는 힘을 잃는다. 열린 마음과 솔직함이 있는 이 공간에서 죄를 숨기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상담자는 과거의 문제를 들으며 상담한다. 과거에 경험했던 감정의 상처를 덮어두거나 회피하는 것보다 온전히 직면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감정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과거의 사건을 재편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를 재해석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기억은 단순히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앞을 바라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피상담자의 생활방식 속에서 과거의 사건이 끼친 영향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도록 돕는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속한 이들이고 그리

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과거를 해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변하기 원하시고, 우리가 변하는 과정에서 이웃을 변화를 위해 힘쓰기를 원하신다. 상담은 이런 피상담자의 변화를 돕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잖은 성장을 위한 자원을 허락하셨다. 이를 더욱 잘 분별하고 적용하는 기독교 상담의 방법론이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Abstract

Three Resources of Christian Counseling for Changing

An Keong Seong(Ph.D.)

The central issue discussed in this article is that three resources of Christian counseling would help one to grow into personal maturity. It involves the question of accepting the important role of Christian counseling in the maturing process of a person and thus achieving change and maturity. There are many biblical statements of maturity: 1) that maturity is the putting off our old self and putting on the new self; 2) that maturity is better described as dynamic process rather than static state; 3) that change is occurred when we live according to Holy Spirit. Sin is the primary problem the counselor must deal with in this process, and the Word of God is foundational to all significant and lasting life change. Then, this article analyzes three resources—mi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healing—from a maturational orientation in order to prove that they play a central role in growing and maturing. First, the role of the mind is evaluated in the context of the change process followed, finally, by a Christian rationale of cognitive therapy. The essence of a person is revealed in

our mind about personal identity, quality of life, and personal responsibility. The renewal of mind unto biblical truth needs ongoing repentance and obedience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Second, the article shows the need for the influence of maturity provided by relationship with God and others. Relationship including spiritual role modeling is powerful in shaping the life. Christian counseling, with its concern to the processes of growing and maturing in relationships, has a biblical frame of reference which positively reinforces a developing maturity in relation to God, as well as others. Third, the awareness of hurt in a counselee's personal past and its healing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upon his change of his manner of life. Change occurs in the present. It involves acceptance and catharsis of the hurts, and repentance of the distorted values, and the releasing from the past and putting on of new behavior patterns.

Key Words: change, maturity, mind, relationship, healing

